

아미노로직스, 비천연 아미노산 일본수출

아미노로직스(대표 윤훈열)가 일본기업들이 주로 생산하는 비천연 아미노산을 일본에 역수출한다.

아미노로직스는 비천연 아미노산인 <D-세린>을 기존 국제가격의 60-70%인 kg당 90달러 미만에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일본 Kyowa Hakko Bio의 국내 대리점인 삼오제약과 체결했다고 5월21일 발표했다.

D-세린은 의약품 원료로 주로 사용되는 비천연 아미노산으로 일본기업들이 생산·공급을 주도해왔다.

아미노로직스는 “수백종의 비천연 아미노산을 하나의 촉매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생산공정을 적용해 가격을 낮출 수 있었다”고 밝혔다.

또 “현재 사용하고 있는 촉매제(ARCA)보다 효율과 생산성이 뛰어난 촉매제, 비천연아미노산의 원료인 라세믹(Racemic)의 자체 개발을 계속해 D-세린을 비롯한 아미노산의 생산원가를 더 낮출 계획”이라고 덧붙였다.

윤훈열 대표는 “항폐결핵 치료제인 싸이클로 세린의 주요 소재인 D-세린을 전세계에 인화된 가격에 공급해 제3세계의 많은 환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”고 말했다.

<화학저널 2013/05/21>